

제15회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학술대회

“번역과 메이지 일본의 사상”

전체사회 : 강상규(방송대)

2022 SAT
01.15
14:00 - 17:30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시민강좌 〉

번역과 메이지 일본의 사상

14:00 – 14:10	개회사 강상규(방송대/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4:10 – 14:50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연구원) 토론 유불란(서강대)
14:50 – 15:30	서양사정에서 서양의 개념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송경호(연세대 통일연구원) 토론 김태진(동국대)
15:30 – 15:40	Break Time
15:40 – 16:20	서양을 번역하다-19세기 동아시아 번역자들의 고뇌 소진형(서울대 선임연구원) 토론 손민석(서울과학기술대)
16:20 – 17:00	정치사상의 번역, 번역의 정치사상 홍철기(서강대 전임연구원) 토론 박은영(성균관대)
17:00 – 17:30	자유토론

목 차

▣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어떻게 읽을 것인가?	4
김현 (연세대 정치학과 연구원)	
▣ 서양사정에서 서양의 개념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11
송경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 서양을 번역하다 – 19세기 동아시아 번역자들의 고뇌	25
소진형 (서울대 선임연구원)	
▣ 정치사상의 번역, 번역의 정치사상	33
홍철기 (서강대 전임연구원)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현 (연세대 정치학과 연구원)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현 (연세대학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 -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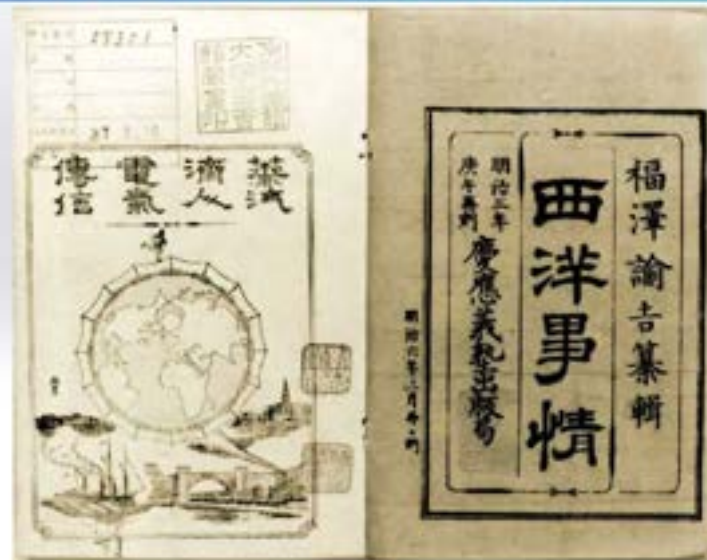
한국에 소개된 후쿠자와 유키치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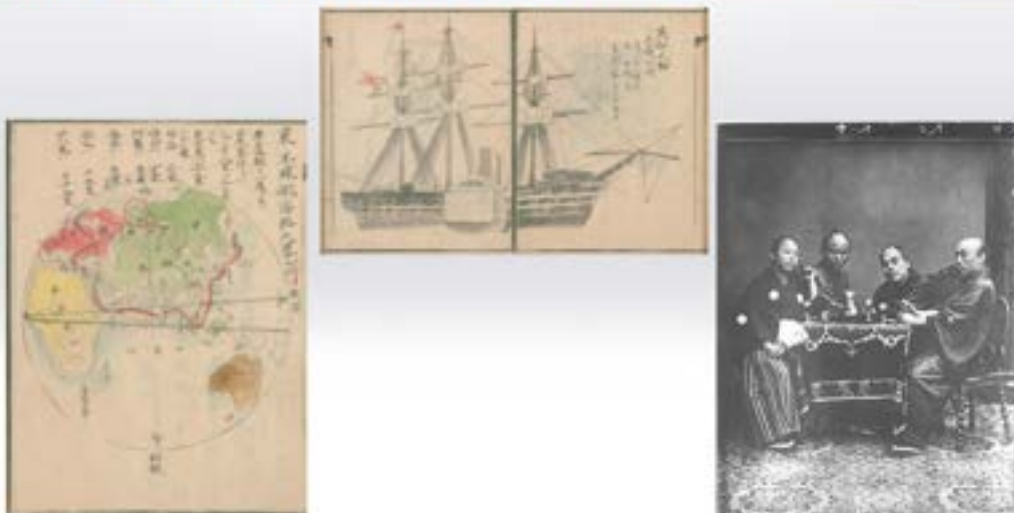
서구적 근대성의 이중성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판 1866년, 외판 1867년, 2판 1870년



초판 저술의 배경: 분류유럽사절단(1862)과 후쿠자와 유키치



초판의 집필 의도

○ 서양 사정(西洋事情)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오래되었고, 이를 번역한 것 역시 적지 않다. 그리하여 군리(軍理)·지리·방물·경제(經濟) 등의 여러 학문이 널리 알려지고 다짐이 밝아져 우리 문명의 진척에 도움을 주고 국왕(國王)과 부국(富國)을 세우니 그 이치가 어찌 모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가끔씩 생각하건대 오직 해외의 학문(學問)과 기술(技術)만을 갈구할 뿐 각국이 정치(政治)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採擇)할지 알지 못한다면, 실로 그 학문과 기술은 헛된물(虛妄)이요, 그 기술(技術)의 근본은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실용(實用)에 어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초래할지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본다. 각국의 정치(政治)를 살펴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읽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世間)은 일이 번갈아 지어 이렇지 아니 학문을 행하



문명의 정치 6조

- 제1조. 자주임의
국법이 관대해 사람을 속박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하니, 사(士)를 좋아하는 자는 사가 되고 농(農)을 좋아하는 자는 농이 된다...
- 제2조. 신교
사람들이 귀의한 종교를 받들어 정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않음을 말한다.
- 제3조. 기술과 학문을 장려해 새로운 발명의 길을 여는 것.
- 제4조. 학교를 세워 인재를 교육하는 것
- 제5조. 보임안은
정치가 일정해 변혁하지 않고 호령은 반드시 믿음이 있고 속임이 없으며 사람들은 국법에 의지해 편안히 산업을 경영함을 말한다.
- 제6조. 인민이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서양사정(西洋事情)』 - 외판: '뇌중대소란'의 산물

"게이오 3년 미국 여행 이후, 人事의 議論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심 충만했지만, 아직 단서를 열어줄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서양 각 나라의 출판의 서류를 읽고, 그 치국경제수신의 의론에 조우하게 되자, 일시에 뇌중에 대소란이 일어났다."



존 힐 버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서양사정(西洋事情)』 외편과 존 힐버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목차

	이	의
1 주	Immersion Visual Experience	VR
	Tap Feedback	터치
	Individual/Hip-Hop/Latin	개성/힙합/라틴 3차원
	Customization	맞춤형 디자인 3차원
2 주	Equality and Inequality Distribution of Roles	역할의 평등 3차원
	Society of Consumption System	소비사회 시스템의 3차원 표현과 사회의 질
	Expansion of Material and Imagination	물질과 상상력의 확장 3차원 표현
	Intersection of Physical and Virtual World	현실과 가상
3 주	Change of Government	정부의 변화 3차원
	Efficient Physical Government	효율적 정부
	Local and Global Implications	지역과 세계
	Government of Sustainable and Resources	지속 가능한 정부
	The Discovery of the Future	미래의 발견
	The Future of Virtual Economy	가상 경제의 미래
	Origin and Future of Property	재산의 기원과 미래 3차원 표현과 사회
	The Protection of Property	재산 보호의 미래 3차원
4 주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Trade and Property	자유 무역과 재산 보호의 미래 3차원 표현과 사회

문명의 요체

2008年12月

[illegible]

원근교세의 큰 골짜기를 밟아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단단한 땅이 시
로 보아 힘을 주고 마음을 써서 각각 그 끝에 따라 보살을 얻고 세상 일
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체로 집어삼키는 사
람들 중에 적막하고 말이 없어 스스로 혼란을 겪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여 있다. 이는 본성이 불행한 까닭이다.
다른 사람이 그 때 묻는 것은 단단하고 무사한 사람의 지경이다. 그
때 묻는 사람이 그 때 묻는 것은 단단하고 무사한 사람의 지경이다. 그
때 묻는 사람이 그 때 묻는 것은 단단하고 무사한 사람의 지경이다. 그

"일신 독립해서 일국 독립한다."

『서양사정(西洋事情)』 - 2편

『2편』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제3권 — 제3차 1권
 제4권 — 제4차 1권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제3권 — 제3차 1권
 제4권 — 제4차 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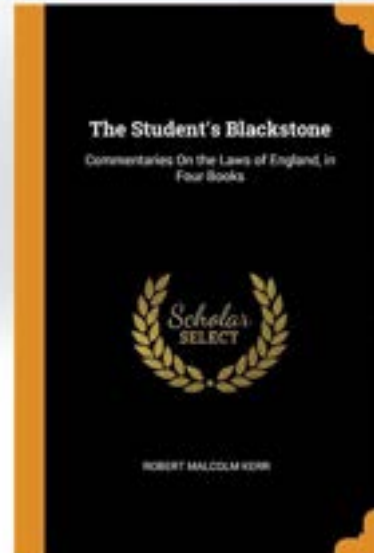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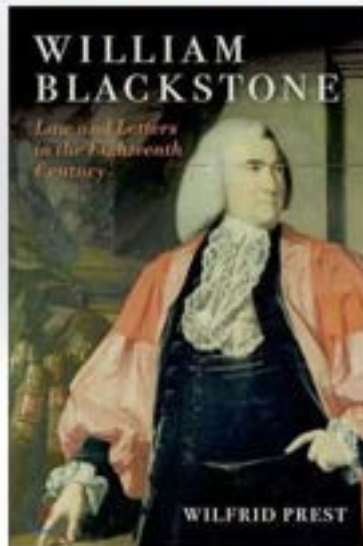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제3권 — 제3차 1권
 제4권 — 제4차 1권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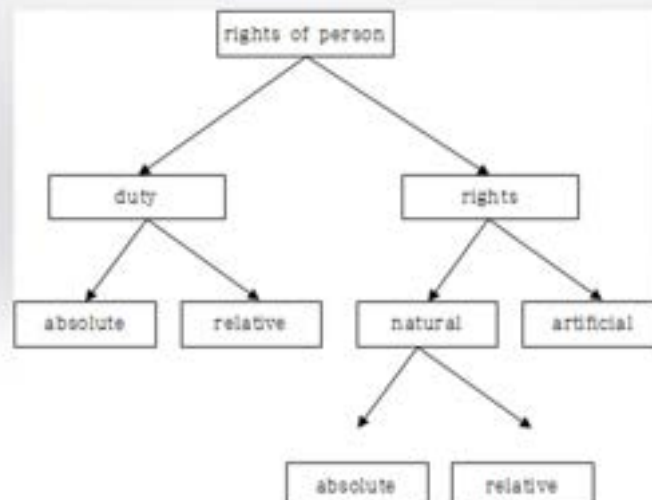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제3권 — 제3차 1권
 제4권 — 제4차 1권

제1권 — 제1차 1권
 제2권 — 제2차 1권

윌리엄 블랙스톤 (1723 - 1780)



윌리엄 블랙스톤 : Rights of Person



A TURN TO EMPIRE

THE RISE OF IMPERIAL LIBERALISM IN BRITAIN AND FRANCE



JENNIFER PITTS



『서유견문(西遊見聞)』(1895)



서양사정에서 서양의 개념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송경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서양사정」에서 서양의 개념들이 어떻게 번역 됐는가?

제15회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학술대회

송경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게다가 오늘날 학문이 융성해 세상사람 중에 서양 서적을 공부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몇 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원문을 이해하게 되어 이 책과 같은 것들은 틀림없이 창아래 빈 술병처럼 낡은 종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 본래의 뜻 역시 감히 불후불박하기를 꾀한 것이 아니라 필경 단지 한때의 신문 대응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연유로 불과 며칠 만에 급히 작성해 소홀하게도 빠진 부분이 많다는 죄를 씻을 길은 없겠지만, 독자들에게 바라건대 나의 뜻에 집중하되 문체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취지(主旨)의 대강을 놓치지 않는다면 크나큰 기쁨이겠다.

「서양사정」을 어떻게 읽으면 더 재미있을까?

개념사의 맥락에서 읽어보자

PART 1. 개념과 용어



개³

Pronunciation

[개] ㄱ 애 ㅣ

Etymology

<가치> <물국>

표준국어대사전

고려중앙국어대사전

우리말샘

noun

1. 모든 것과의 조유류. 가족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 일반적으로 늑대 따위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냄새를 잘 맡으며 귀가 밝아 사람이나 군말, 행단 선도와 마약 및 폭약 탐지에 쓰인다. 전 세계에 걸쳐 모양, 크기, 색깔이 다양한 300여 종종이 있다.

(학명) *Canis familiaris*

2. 행실이 행방없는 사람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그는 술한 역조한 개가 한다.
3. 다른 사람의 말없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노답이 이르는 말.
그는 말에의 말없이 노릇을 하는 개이다.



개편다 은 무슨 뜻인가요?

HiNative

개념 ≡ 용어

개념과 용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PART 2. 개념사

Democracy

Demos & Kratos

개념 ▶ 용어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정착되는 역사적 과정



기본 개념의 성립과정

민주화, 시간화, 이데올로기화, 정치화

말안장 시대

Sattelzeit

민주주의

民主主義



용어 ▶ 번역어

용어에 대한 번역어가 정착되는 역사적 과정

기본 개념의 수용과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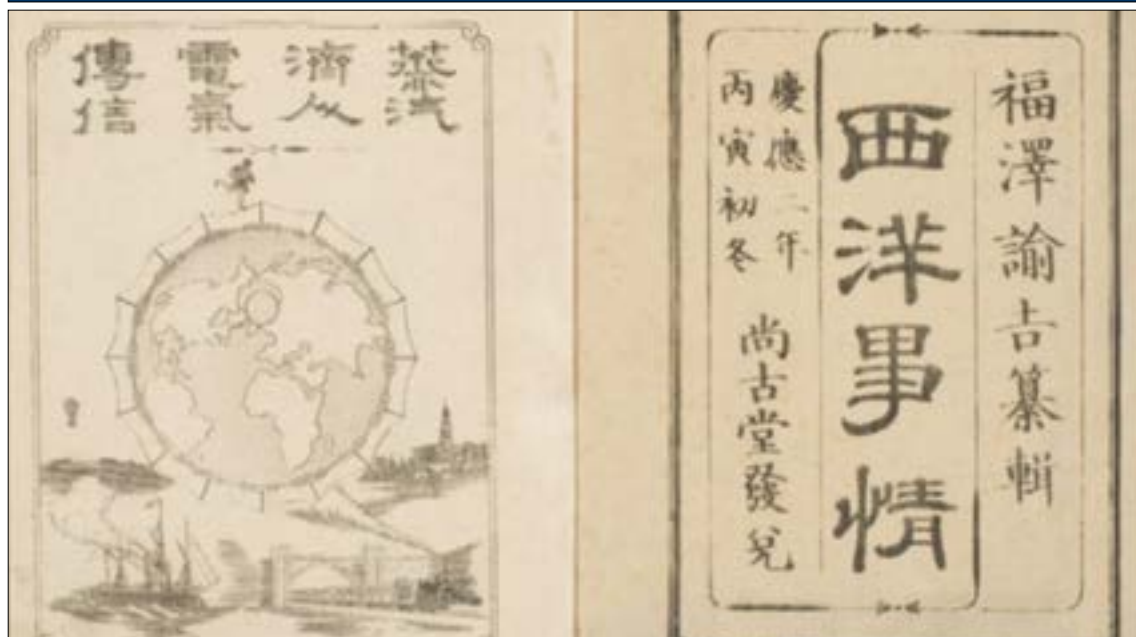
개념 - 용어 - 번역 - 번역어 - 표준화 - 일반화

19세기 大 번역의 시대

동아시아 - 막부말/메이지 일본



PART 3. 「서양사정」



문명개화 文明開化

역사를 살펴보면 인생의 시초는 몽昧하고 점차 문명개화에 도달하게 된다. 몽昧해 문명에 이르지 못한 세상에서는 예의의 도리(道)가 아직 행해지지 않아서 각 사람이 스스로 혈기를 제어하고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범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니, 아내를 노비와 같이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무도(無道)하게 다루어도 이를 막는 사람이 없다. 또한 세상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제의 도리(道)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제도를 세워 일반을 위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이 문명에 도달함에 따라 이 풍속이 점차 그치고, 예의를 중히 여기고 정욕을 제어하며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의 도움을 받고 약자는 강자의 보호를 받으며 각 사람은 서로 신뢰해 단지 사사로운 것만을 생각지 않으며 세상 일반을 위해 권리를 도모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정치 共和政治

정치

○ 정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입군호권(모나키monarchy)은 예약정벌(禮樂征伐)⁹이 한 명의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귀족합의(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는 국내의 귀족·명가(名家)가 함께 모여 국정을 행하는 것이다. 공화정치(리퍼블릭republic)는 문벌·귀천을 불문하고 인망이 두터운 자를 세워 대표로 삼아 국민 일반과 협의해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입군정치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즉 군주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을 입군독재(테스포트despot)라 한다. 러시아와 중국¹⁰ 등의 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나라에 두 왕은 없다고 하지만 일정한 국물(國祚)¹¹이 있어

경제 經濟

웹버스의 경제서는 그 논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인간교제의 도리(道)에서 시작해 각국이 나누게 된 연원, 각국의 외교, 정부가 수립된 연유, 정부의 체제, 국법, 풍속과 인민교육 등에 이르는 조목을 각기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소셜 이코노미(social economy)"라고 한다. 후반부에서는 경국제새(經濟世)¹²의 일을 논하고 있는데, 이를 "폴리티컬 이코노미(political economy)"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동료(社友)¹³인 간다(田中) 씨가 번역한 「경제소학(經濟小學)」¹⁴ 두 권과 비교해 살펴보면 사실 후반부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니, 필경 대동소이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나는 웹버스의 책 중 전반부만 번역하고 그 외 경제론의 상세한 내용은 붓을 멈추고 「경제소학」에 양보하려 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경제소학」도 참고해야 비로소 전체적인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단, 내가 웹버스의 책 전부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결코 힘쓰기 싫어서가 아니다. 무릇 근래에 문화가 점차 열려 번역서

자유 自由

제1조. 자주임의의主人 國법이 관대해 사람을 속박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하니, 사士를 좋아하는 자는 사士가 되고 농農을 좋아하는 자는 농農이 된다. 사농공상士農工商 간에 조금도 구별을 두지 않으니, 본디 문벌을 논하는 일 없고 조정朝政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상하·귀천이 각각 그 소임을 얻어 조금도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천품의 재능을 필치게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귀천의 구별은 단지 공무에 한해 조정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일 뿐이다. 그 외에는 사농공상의 구별이 없으니, 문자를 알아 이치를 논하고 마음을 닦는 자를 군자로 삼아 이를 존중하고, 문자를 알지 못해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소인으로 여길 뿐이다.*

▶ 본문의 자주임의의 자유라는 글자는 제멋대로 방탕해(亂暴無禮) 국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나라이든 사는 모든 사람과 교제할 때, 신경쓰거나 걱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영어에서 이를 '프리덤(freedom)' 혹은 '리버티(liberty)'라고 한다. 아직 적당한 번역어가 없다.

통의 通義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13주 독립의 각문

인생의 부득이한 시운 속에서 일족의 인간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서 어떻게 물리 본도(本道)의 자연에 따라 한 세계 안국과 나란히 서서 별개의 한 나라를 세울 때는 그 건국의 이치를 사술하고 인심을 살피고 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이 사람을 낳는 것은 이로 모두가 해한가(何)로 그에게 부여된 움직일 수 없는 통의(通義)*가 있다. 즉 통의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보전하고 자유를 구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부류의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정부를 세우는 이유는 그 통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서, 정부라는 것은 그 인민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참으로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이 취지에 반할 때는 곧 이를 변혁하거나 대조하고, 나아가 그 큰 취지 내 의거해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 역시 인민의 통의이다. 이는 우리가 변론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것이다.

● 인준고(人尊高)의 뜻에 따라 생각하면, 예로부터 내치는 정부를 갈탄의 경솔한 거동으로는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인민을 대상으로 강압을 가해하고 나쁜 통속(通俗)을 고치지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과주(苛主) 제외(제외)의 폭언으로 나라 안을 괴롭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를 폐지하고 자주의 안전을 확고히 하는 것은 사한(士)의 통의이며 지정(指定)이다.

직분 職分

또한 각 사람이 교제의 도리(道)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각자가 자신의 덕행을 닦고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야비하고 고루한 풍습을 벗어나 예외문명(禮義文明)의 세상에 사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바다. 그렇다면 어찌 각 사람이 덕을 닦고 법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문명개화를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리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해치는 자는 그의 죄가 몸을 나태하게 해 다른 사람의 공을 훔치는 자와 같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 후일의 곤란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법은 사람들의 평의(評議)를 좇아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소를 세워서 죄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의 법은 개벽의 때부터 세상에 행해진 것으로 이를 받들어 지키는 것은 세상사람이 미땅히 힘써야 하는 직분이다.

문명의 눈으로 이를 살펴보면, 여러 법 중에는 간혹 사람에게 불편한 것도 있는 듯하지만, 나라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제멋대로 난폭한 행동을 해서 이 법을 어기

원어	번역어	원어	번역어
인민		종교	
名代人	대표자	法王, 法皇	교황
代人	대리자	寺院, 寺	교회
民精	민심	僧徒	사제
民	백성	合衆寺院	성공회
民庶	서민	僧官	성직자
世人	세상사람	僧	수도사
市人	시민	耶蘇宗, 耶蘇教	예수교
國人, 國民	국민	宗旨	종교
土人	원주민	宗門	종파
夷民, 野民	야만족	天王教	천주교
賈奴	노예		
衆人	대중		
小民, 下民, 庶人	생민		
平人	일반인		

PART 4. 시공간적 맥락





“한 때의 신문지에 불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연원



감사합니다.

서양을 번역하다 – 19세기 동아시아 번역자들의 고뇌

소진형 (서울대 선임연구원)

서양을 번역하다: 19세기 동아시아 번역자들의 고뇌

소진형(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번역가들의 문제의식과 번역의 대상 선정

-무엇을 번역했는가?

-왜 번역했는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누가 번역했는가?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번역

-불경 번역

-16세기 이후 중국에서 천주교 텍스트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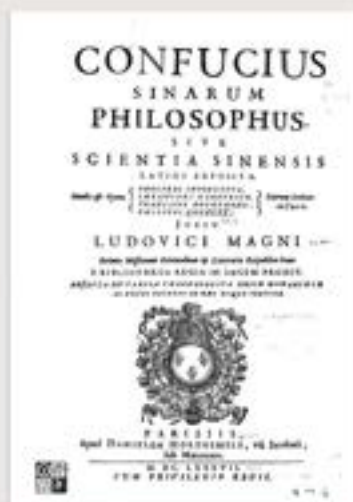
-난학 등 일본에서 네덜란드 의학서 번역



Arte de la Lengua Chio Chiu (17세기 초)



Michele Ruggieri, Matteo Ricci, Portuguese-Chinese Dictionary (16세기 말)



Philippe Couplet,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Latine Exposita* (1687)



解體新書 (1774)



Euclidis Elementorum libri XV (1591)



기하원본(1607)



James Legge, 대학 번역

19세기 일본의 번역가들의 고뇌: 충실한 번역을 할 것인가, 독자에게 친절한 번 역을 할 것인가?

-충실성: 번역자가 독자를 위해 원본에 완전히 일치하는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접근성: 번역자가 목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 텍스트 만들기
라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가를 지칭하는 것.

<지환계몽숙과>



재임스 레그 <지환계몽숙과>
우류 도라, <계몽지해내환>
히로세 와타루, 나가타 도모요시, <지환계몽화해>



번역어와 외래어

-일본어에 없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Lesson 29. *Dress of Women.*

The dress of girls and women consists of shifts, skirts, stays, frocks, gowns, bonnets, caps, shawls, and cloaks. Their ornaments are necklaces, ear-rings, brooches, bracelets, rings, and chains. Pins, buckles, clasps, buttons, hooks and eyes, and strings are used to fasten the various parts of their dress.

(좌) 지한계몽숙과

(위) Charles Baker, *Graduated Reading Gradation*

English	何礼之	日本第一	譯書會編	張相文·程炳南	譯者
the assembly of the people	國人 / 議會	國民の會	公會	公會	議會
the rights of sovereignty	君權	國主なるの權利	君權	君權	君主主權 / 主權之權 / 主權
citizen	國民	國民	全國人民	x	x
the public assemblies	公會	議會	x	公會	議會
minister	執政官[各國執政官]	宰相	行政官	行政官	首相, 公僕
magistrate	執政官	官長 / 外官長	官吏	行政官	國守官
council	議政官	評議會	議政官	議政官	x
senate	元老院	上院	元老院	元老院	議府
election	選舉 / 選舉 / 公選	選擇, 경우에 따라 當選으로도 번역.	選舉 / 選舉	選舉 / 選舉	選舉
legislator	立法者	立法者	立法者	憲法之者	立法之者
suffrage	投票	可否選舉	投票	選	投票權之權
the right of suffrage	投票 / 權利	選舉の權	投票之權利	投票之權	公投票權
the principal citizen	國民	上위의國人	國民	民衆	x
vote	選舉 / 權	投票	投票權	投票	投票人
the suffrage by lot	抽籤 / 法	抽籤	抽籤法	投票之法	抽
the suffrage by choice	人才抽籤 / 投票	抽籤	抽籤	投票	選

용태석의 『법의 정신』의 19, 20세기 일본, 중국 번역본 중 선거 관련 단어 번역 비교

“우리나라에서 ‘인간본성의 근본원리’나 ‘심리학’에 대한 유럽 책들의 번역은 지금까지 극도로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번역 문자의 문제에서 무엇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비록 내가 내 용어를 한학자나 유학자들이 자체로 설명하는 것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본성’에 대한 구분이 극도로 성세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어에 의해 지시되는 명칭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안적 글자를 선택하고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인식’, ‘기억’, ‘의식’, 그리고 ‘상상력’과 같은 용어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용어들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은 주로 새로운 구조물들이며, 독자는 예를 들어 ‘여성’, ‘감성’, ‘각각’, ‘이해’와 같은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니치 아마네, 조셉 헤이본의 <정신철학> 서문

니시 아마네의 <백학연환>



일관성의 창조: 표준화와 형식화

- 표준화의 필요성: 일본어와 유럽어 사이의 적합한 조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문어체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구어체로 번역할 것인가?
- 외래어는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음가로 표기할 것인가?

사전과 표준용어

- 1881년 이노우에 데쓰지로의 <철학사전>
- 1883년-1885년 <동양학예잡지>의 표준번역어 목록

번역과 일본어

-번역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일본어를 유럽 언어의 형태로 모방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했다는 것.

→1880년대에는 일본어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이 급증.

예: 현대 일본어 문법 정리.

고전 일본어 문법 정리.

구어체 일본어의 발전에 대한 연구 및 표준어와 방언의 구분

→1880년대 문어체 일본어의 형태에 대한 논쟁: 일본어에 한자를 계속 써야 하는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라틴어 알파벳으로 중국문자와 일본문자를 대체하고 일본어는 로마자로 써야 하는가?

결론: 번역과 근대 동아시아 언어의 관계

-전근대 시대의 번역과 19세기 번역의 차이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 혹은 사물에 대한 번역

-번역의 과정과 서양의 문법적 관점에서 일본어를 사유함

정치사상의 번역, 번역의 정치사상

홍철기 (서강대 전임연구원)

정치사상의 번역, 번역의 정치사상

홍철기 (서강대학교 글로벌사회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

- 정치의 번역: 정치에 관한 모든 담론은 번역의 산물
- 번역의 정치: 번역 행위는 일종의 정치 행위;
오역(誤譯)과 정역(正譯)의 차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정치’와 ‘정치적’

- 정치(politics), 정치적(political); 공동체(polis), 치안/경찰/단속(police)
- ‘정치적’ 말, 혹은 말의 ‘정치’: ‘우리’가 ‘지들’에 비해 우세하고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갈등적/투쟁적/논쟁적 의도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언어 활동;
특정 용어나 개념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심지어 ‘정치적/비정치적/탈정치적’이라는 말도 예외가 아님;
ex. 정치적 의도, 정치적 수사, 정치적 성향, 탈정치화; cf. 한국 정치

정치적 말 혹은 말의 정치

- 절대 부정: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포퓰리스트입니다.’ (x)
‘우리는 [당신이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 포퓰리즘 신봉자들입니다.’ (x)
- 절대 긍정: ‘민주주의’, ‘민주주의자’
‘저 사람은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민주주의자입니다.’ (x)
‘저들은 [절코 신뢰할 수 없는] 민주주의 세력입니다.’ (x)
- 논쟁 중: ‘페미니즘[여성주의]’, ‘페미니스트[여성주의자]’
옹호자와 반대자가 ‘페미니즘’에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
반대자들은 ‘페미니스트’라는 호칭을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멸칭으로 사용

말의 정치적 의미 변천사 (1)

- 포퓰리즘(populism): 원래는 19세기 말 미국 농민 정치운동에 의해 ‘인민(people)의 친구’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 슬로건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용어;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 진보 역사학자들이 부정적 의미로 되살려냄; 거의 모든 종류의 대중 동원/선동 운동을 비판하는 말로 의미가 추상화 및 확장됨.

말의 정치적 의미 변천사 (2)

- 민주주의(democracy): 서양 고전 사상에서 민주정(‘민주주의’가 아님)은 역사적으로 단명한 그리스 아테네 정치체제를, 이론적으로는 ‘정체순환’에서 독재[폭정]의 전 단계를 의미함; 현대와 달리 부정적 의미;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했을 때 혁명가들 자신도 이를 민주정/민주주의로 부르기를 꺼려함;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와 상업사회를 발전시키려 했던 그들이 알고 있는 2000년전 민주정이란 노예제를 실시하는 시민-군인 공동체였기 때문; 프랑스 혁명 직후 유럽에서 ‘민주주의자’란 현대의 ‘빨갱이’와 유사한 의미의 멸칭으로 사용됨.
- ‘민주주의의 승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승리’

말의 정치적 의미 변천사 (3)

-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를 비롯한 소수자 정체성 정치가 모두 '백래쉬(backlash)'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발과 반작용의 시대를 겪고 있음.
- 여성 권리 확장의 역사

정치적 말의 변천사와 번역

- 모든 정치 담론은 '수입된', 즉 '번역된' 것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도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 서양 정치사상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번역과 성서 번역
- 동양 정치사상사: 근대화 시기 서양 사상 및 학문의 번역

번역과 번역어의 정치 (1)

- 정치적 언어와 정치적 갈등: '국민'과 '인민', 'nation'과 'people'
- 정치적 언어의 역사적 의미 변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ex. 21세기 미국과 유럽 학계의 populism 용례와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포퓰리즘' 용례의 차이

번역과 번역어의 정치 (2)

- '1:1 번역', 혹은 '원본에 충실한 번역'의 불가능성(개념의 다의성):
'번역은 반역이다(Traduire, c'est trahir).';
번역은 번역 대상, 그리고 번역자에 의한 번역어의 선택에서 해당 개념, 담론, 사상의 의미의 시대적 차이와 지리적 차이, 그리고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차이('말의 정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활동이자 과정;
또한 번역론과 번역관의 역사적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 17세기 영국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번역론

번역과 번역어의 정치 (3)

- 번역과 재번역(중역과 개역)의 필연성:
오역과 정역이 이분법이 아닌, 시대적, 지리적, 정치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 재번역의 순환 관계